

영어어문교육 9권 특별호 2003년 가을

명시의미의 규명에 따른 화용론적 기여

김 창 익

(호서대학교)

Kim, Chang-Ik (2003). Pragmatic contributions to the identification of explicatur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9(Special Edition)*, 149-165.

This paper is aimed at the investigation of pragmatic contributions to the identification of explicatures. An explicature is the result of fleshing out the semantic representation of an utterance. The basic assumption of the paper is that the process of the developing the semantic representation into an explicature depends heavily on contextual information. Therefore, we are concerned with the way in which hearers use contextual information to flesh out or develop the semantic representation of an utterance. The identification of explicatures includes both the recovery of the proposition expressed and the recovery of what we called higher-level explicatures. There are three subtasks involved in the recovery of the proposition expressed: reference assignment, disambiguation and enrichmen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wo subtasks involved in the recovery of higher-level explicatures: attitudes and speech acts.

[explicatures/ semantic representation/ the proposition expressed/ higher-level explicatures/ reference assignment, 명시의미/의미표상/ 표현된 명제/상위질 구조의 명시의미/지시부여]

1. 서론

발화의 독자적 의미¹⁾를 출발점으로 청자는 맥락이나 비언어적 정보를 고려하면서 발화의 추론을 얻게 된다. 그 추론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명시의미와 함축이다. 명시

1) 독자적 의미를 문자적 의미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자적 의미는 명시의미와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명시의미는 반드시 명제형식을 빌어 표현되고 따라서 진리치를 구할 수 있으나 독자적 의미는 반드시 명제형식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는 화용론적 요인에 의해 발화의 의미적 표상을 부각시킨 결과이다(Sperber & Wilson 1986). 그래서 명시적 의미는 발화된 표현의 축자적 내용을 함의한다. 이에 비하여 함축은 축자적 의미가 자극이 되어 대화 협력 원칙과 같은 화용론적 요인에 의해 파생되는 추론이다. 함축은 축자적 의미를 함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로부터 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한다. 이들 두 추론의 차이를 구체적인 예로 설명하기로 한다.

- (1) Your paper is too long.
 (2) The article that the hearer has written is too long for the conference.

위 (1)과 같은 발화를 접한 청자는 맥락이나 비언어적 정보를 동원하여 명시적 의미인 (2)를 도출한다. 청자가 비언어적 정보를 동원할 때, 그는 문법에 의해 마련된 틀 위에 추론을 세운다. 즉 발화의 언어적 속성과 청자가 복원하는 명제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와 대조적인 (3)과 (4)의 예를 보자.

- (3) A: Did I get invited to the conference?
 B: Your paper was too long.
 (4) Speaker A did not get invited to the conference.

위 (4)는 (3A)의 물음에 대한 (3B)의 대답에서 청자(3A)가 도출하게 될 명제이다. (3B)의 발화가 갖는 언어적 속성과 (4)의 명제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없다. 청자에 의한 (4)의 도출은 화자가 표현했다고 간주되는 명제(2)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2)를 가정하는 다음 (5)의 조건문의 예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 (5) If your paper is too long for the conference, you will not be invited.

다시 말해서, (4)는 청자가 발화에 의해 표현된 명제를 도출해 놓기만 하면 도출될 수 있는 또 다른 명제이다.

이들 두 추론 중, 명시적 의미는 함축에 비해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 그것은 명시적 의미가 문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명시적 의미의 규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법의 영역을 벗어나 화행이론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시적 의미의 규명은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복원하는 작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논점에서 본 논문은 명시적 의미의 규명에 따르는 화용론적 기여를 관찰, 기술하려 한다. 이를 위해 문법에서 논의되어 온 몇 가지 영역들과 새로이 고려해야 할 기타 영역들, 그리고 상위질 구조의 명시적 의미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특히 상위질 구조의 명시적 의미는 본 논문의 제안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체로 부각된 명시적 의미는

명제 형식으로 표현된다. 하나의 발화가 하나의 명제 형식이 되기까지, 그 발화는 화용론적 요인들에 의해 의미가 보충되고 갖춰진다. 문법의 각 영역별로 명시의미로 규명될 때의 화용론적인 기여를 차례대로 기술해 나가기로 한다. 편의상, 문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영역들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문법의 기타 영역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문법의 세 영역들에 관한 명시의미

일반적으로 화용론의 관심은 함축과 관련된 맥락 정보에만 두어졌다. 그러다 보니 명시의미를 규명하는데 기여하는 맥락정보들이 화용론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명시의미와 관련된 맥락 정보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을 실증하기 위해 문법의 세 영역인 중의성, 대명사 등의 변형, 그리고 직시체계적 표현과 관련된 명시의미를 살펴보겠다. 먼저, 중의성의 경우에서 맥락정보의 기여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중의성

한 낱말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 그 낱말은 중의성을 가진다고 한다. 이러한 중의성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며 아무런 불편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맥락정보가 중의성을 해소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6)의 예를 보기로 하자.

(6) A: Did you enjoy your holiday?

B: The beaches were crowded and the hotel was full of bugs.

밀줄친 bugs는 중의성을 갖는 표현이다. 이 단어는 '벌레'의 뜻과 '방범벨'의 뜻을 가진다. 이 두 가지 뜻 가운데 화자 B는 어떤 의미를 가정하고 발화를 하고 있는가? 화자의 가정을 추구하려면, 청자 A는 여러가지 상정 내용을 생각할 수 있다. 가정, '벌레'의 유무가 사람의 편안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상정내용을 가질 수도 있고, '방범벨'이 방안에 가득 숨겨져 있다는 상정내용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청자 A는 휴가와 호텔에 대한 일상 대화에서 후자 보다는 전자에 더 많은 관련성을 느낄 뿐만 아니라 더 접근할 수 있는 상정내용으로 가정하게 된다. 이것은 휴가와 호텔과 같은 화용론적인 맥락정보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맥락정보로 인하여 다음 (7)과 같이 중의성이 해소되며 이 '벌레'로의 해석은 '방범벨'의 해석보다 관련성이 높아지게 된다.

(7) The beaches were crowded with people and the hotel was full of insects.

언어적 중의성을 해소하여 명시 의미로 더욱 접근하기 위해서는 화용론적 맥락 정보가 지극히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 명시 의미는 결국 많은 사람들과 별례들 때문에 '휴가를 즐겁게 보내지 못했음'을 함축하게 된다.

2. 대명사 등의 변항

중의성과 마찬가지로, 대명사 등의 변항이 포함된 문장도 명제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화용론적 맥락 정보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대명사 등의 변항은 의미 해석을 위해 화용론적 맥락 정보의 도움으로 지시를 부여받을 수 있다. 언어적 변항의 유발자는 대명사 외에도 시제가 있다. 변항이 지시를 부여받는 다음 (8)의 예를 보기로 한다.

(8) a. He'll never make it.

(said while watching a man climb a ladder carrying two pots of paint, a scraper, a roller, a brush, a rag, putty and sundry other items.)

b. I left your mail on your desk.

c. The plumber came and he'll send a quote.

d. Everyone came to dinner last night and Jones got tipsy.

화용론적 맥락은 (8a)에서 *he*가 지시하는 사람을 알려주고, (8b)에서 *left*의 과거시제가 지시하는 시간을 알려준다. 한편, (8c)에서의 *he*와 (8d)에서의 *got drunk*의 과거시제는 그 문장보다 앞에 있는 문장의 지시를 선택한다. 그래서 (8c)에서 *he*는 그 선행어 *plumber*와 동일 지시물을 가리키고, (8d)에서 *Jones*가 술취한 시간은 앞 문장에서 언급된 파티의 시간이다. 여기서의 변항을 위한 지시물은 언어 맥락을 통해 확인되었지만, 변항과 표현 사이의 연결은 통사규칙이나 의미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화용론적으로 설정되고 있다.

3. 직시체계적 표현

다음은 직시체계적 표현²⁾의 경우이다. 직시체계적 표현이라 함은 그들 자신의 해석을 위해 체계적인 방식으로 발화 맥락에 의존하는 표현들을 뜻한다. 고전적인 직시체계의 예는 다음 (9)와 같은 표현들이다.

2) '직시체계적 표현'은 두 가지 영어표현을 가진다. 하나는 deictic expression이며, 다른 하나는 indexical expression이다(Kearns 2000:272).

(9) yesterday today tomorrow
 last week this week next week
 last year this year next year

I, we you
 here
 now

this, these that, those

한 발화의 고정지시점들은 다음 네 가지의 확인에서 결정된다: 화자, 청자, 발화 시간과 장소, 그리고 화자의 위치이다. (9)의 표현들은 이들 고정지시점들과 관련하여 해석되는 것이다. 예컨대, *yesterday*는 발화 전날을 지시하고, *this morning*은 발화 당일 아침을 지시하며, *you*는 청자를 지시한다. 또한 *this, these, that* 그리고 *those*도 직시체계이어서 이들 사이의 대조는 화자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지 혹은 먼 위치에 있는지에 의해 해석된다. *This, these, that* 그리고 *those*의 지시적 용법도 정상적으로 가리키는 동작과 관련되어서 그들의 지시가 동작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또한 직시체계어이다.

시제도 일종의 직시체계 장치이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시제는 각각 발화의 시간보다 앞서거나, 같거나, 나중 시간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점 외에도 시제는 청자가 화자의 발화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폭넓은 맥락정보를 사용하도록 만든다.

직시체계란 용어는 형식의미론에서도 사용되는데 매우 광범위한 맥락의존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9)의 표현들 외에도 영어의 한정기술³⁾이 직시체계어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한정기술이 맥락에서 이름과 같은 방식으로 지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문법의 세 영역에 관한 명시의미를 각각 살펴보았는데 이들 세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예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 (10)은 Kearns (2000)로부터 나온 예이다. 화용론적 요인이 어떻게 명시의미의 규명에 기여하는지를 설명하기로 한다.

(10) I saw Jean's new plane yesterday.

(10)의 발화는 '1987년 10월 20일 오전 6시에 발화되었다'고 하자. (10)의 축자적 의미는 대략적으로 다음 (11)과 같다.

3) 한정기술(definite description)이라 함은 정관사인 *the*로 이끌리는 명사구 표현을 말한다. 예컨대, *the man, the cat wearing a bell*, 등이다.

- (11) 'At a time before the time of utterance and overlapping the day before the day of utterance, x_{1s} saw Jean's aeroplane or woodscraping tool which was just born, recently manufactured or recently acquired.' (x_{1s} 는 변항으로서 일인칭 단수를 나타내고, 중의어인 *plane*과 *new*는 or로 표시됨.)

이것을 더욱 정확하게 하기 위해 화용론적 정보가 다음 (12)와 같이 추가될 수 있다.

- (12) (화자는 Smith이고, 청자는 Smith가 공작반에서 만난 친구인 Jean을 1987년 10월 19일 아침에 방문한 사실을 안다. 발화 시간은 1987년 10월 20일 오전 6시이다.)
- *I* 는 Smith를 지시함.
 - *saw*의 과거시제는 1987년 10월 20일 오전 6시 이전의 시간을 확인함.
 - *yesterday*는 발화 당일 전날을 지시함.
사건의 시간은 1987년 10월 19일임.
[배경 맥락 추가]
 - 사건의 시간은 1987년 10월 19일 아침, Smith가 Jean을 방문하는 동안임.
[중의성 해소]
 - *her new plane*은 *a woodscraping tool which Jean has recently bought*을 지시함.

이렇게 되면 우리는 (10), (11), (12)를 각각 다음 (13)의 a, b c로 놓고 비교해 볼 수 있다. a는 *Smith*의 발화이고, b는 *Smith* 발화의 축자적 의미이며, c는 *Smith* 발화의 명시 의미이며 진리조건이다.

- (13) a. 'I saw Jean's new plane yesterday.'
b. 'At a time before the time of utterance and overlapping the day before the day of utterance, x_{1s} saw Jean's aeroplane or woodscraping tool which was just born, recently manufactured or recently acquired.'
c. 'During the morning of 19 October 1987 while visiting Jean, Smith saw a woodworking tool which Jean had purchased shortly before 19 October 1987.'

지금까지 문법의 세 영역에 관한 화용론적 기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명시 의미의 규명에 따른 기타의 화용론적 기여는 없는 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III. 기타 영역들에 관한 화용론적 기여

앞 절에서 중의성, 대명사 등의 변형, 그리고 직시체계적 표현에 대한 화용론적 기여가 있음을 논의하였으나 본 절에서는 기타의 영역에서도 화용론적 정보가 명시의미 규명에 기여할 수 있음을 살펴보려 한다.

Carston (1988)은 한 발화의 명시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진리치를 평가할 수 있는 명제를 얻는다고 해서 완성될 수는 없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기타의 영역들로서 양화사, *enough* 및 *too*와 같은 낱말, 그리고 연접된 발화와 관련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 양화사

먼저 양화사의 영역을 논의하기로 한다. 다음 (14)와 같은 다소 애매한 진술의 예를 살펴보자.

(14) The park is some distance from my house.

(14)의 표현을 듣는 청자는 단순히 축자적 의미, 지시 부여, 중의성 해소, 그리고 직시체계 표현의 해석에만 기초하여 진리치를 갖는 하나의 완성된 명제를 복원시킬 수 없다. 따라서 (14)의 논리형태가 진리치를 가질 수 있는 완성된 명제가 되려면, *distance*에 대해 걸려있는 존재 양화사 *some*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14)의 명시의미를 규명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my*와 *the park*의 지시대상 부여가 필요하다. *my*와 *the park*에 각각 지시대상을 부여해서 화자는 *Soames*이고 공원은 *Hyde Park*라 할 수 있다면, 다음 (15)와 같은 명제의 명시의미를 잠정적으로 복원시킬 수 있다.

(15) A distance exists which is the distance between Hyde Park and Soames' house.

이 명시의미의 진리치에 따라 *Soames*가 참 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5)가 참이거만 하면 *Soames*는 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집이 *Hyde Park* 안에 있지 않다고 가정하면, 비록 그 공원이 그 집과 길 건너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집과 그 공원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위 (15)가 실제로 명시의미라면, 그가 공원 길 건너에 살고 있더라도 그는 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직관과 어긋난다. 분명히 (14)를 발화할 때에 *Soames*는 그 공원과 화자의 집이 꽤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말했기 때문이다. 물론 '꽤

나 멀리'라는 말도 맥락에 좌우될 것이다. 실제로 그가 공원 길 건너에 살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가령 *Soames*가 공원에서 자주 산책하는지를 누가 물어보았다고 하자. 이 경우에 (14)에 대한 명시 의미는 다음 (16)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16) The distance between Hyde Park and Soames' house is so great that it would not be convenient to walk from Soames' house to Hyde Park in order to walk in Hyde Park.

위 (16)의 기타 정보는 지시부여, 직시체계 표현의 해석, 그리고 중의성 해소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는 다른 양화사의 해석으로부터 나온다. 이와 비슷한 예가 다음 (17)이다.

- (17) a. It will take us some time to do this.
(a long time)
b. They have money.
(a lot of money)
c. Hold the noise down for a minute, I think I heard something.
(something other than the noise you are making, and unexpected or requiring investigation)

위 (17)에서 밑줄친 부분은 역시 양화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괄호 안에 기술된 기타 정보를 도출하게 된다.

2. *enough*과 *too*

양화사 이외에도 *enough*, *too*와 같은 낱말들은 명시 의미를 규명할 때 화용론적 요인이 필요하다. 다음 (18)을 살펴보자.

- (18) a. We don't have enough rice.
b. The park is too far from the house.

위 (18)에서 *enough*과 *too*와 같은 낱말은, 실제로 명시되지 않은 목적이나 행동에 관련하여, 각각 쌀의 양과 공원까지의 거리가 추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다음 (19)에서 명시적으로 표시되고 있다. 밑줄 친 부분은 보충된 내용이다.

- (19) a. We don't have enough rice to make curry and rice for three people.
 b. The park is too far away from the house to walk the distance in half an hour.

실제로 명시되지 않은 목적이나 행동을 발화 이해와 관련시킬 때 비로소 발화의 의미가 명료해질 수 있다. 이 사실은, 다시 한번, 화용론적 정보가 이들 영역에 관한 명시 의미 규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결된 발화

화용론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영역이 연결된 발화이다. 연결된 발화는 *and*로 연결된 중문의 발화를 말한다. Grice (1975)가 함축의미를 설명할 때, *and*에 관한 의미해석의 변화무쌍함을 들어 화용론적 요인이 관계됨을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이 옳다면, *and*에 관한 논리적 분석, 즉 진리표에 의한 의미 해석은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20-23)은 Carston (1988)이 제시하고 있는 *and*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이다. 각 번호의 b의 예문 가운데 밑줄 친 부분이 연결의 논리적 분석에 추가되는 기타의 정보임을 보여주고 있다.

- (20) a. Alice opened the wine and poured a glass.
 b. Alice opened the wine and after that poured a glass.
- (21) a. Jackie has won the Golden Kiwi and she's going to pay off the mortgage.
 b. Jackie has won the Golden Kiwi and as a consequence she's going to pay off the mortgage.
- (22) a. Stephen was tuning his bike and he was listening to the cricket.
 b. Stephen was tuning his bike and simultaneously he was listening to the cricket.
- (23) a. We looked into your Mr Sutton and he has been fiddling his taxes for years.
 b. We looked into your Mr Sutton and consequently we discovered that he has been fiddling his taxes for years.

위에서 볼 수 있듯이 *and*는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진 하나의 중의적 어휘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and*의 해석은 (24)에서 보여 주듯이 *and*의 유무에 좌우되지 않고, 앞 뒤 문장의 순서에 의한 것이다.

- (24) a. Alice opened the wine. She poured out a glass.
 b. Stephen was tuning his bike. He was listening to the cricket.
 c. We looked into your Mr Sutton. He has been fiddling his taxes for years.

위의 예는 *and*의 다양한 해석이 *and*안에 의미론적으로 부호화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and*로 결합되는 문장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와 화용론적으로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 화용론적 정보 내용은 함축이 아니라, 명시 의미에 속해야 한다. 명시 의미와 함축의 차이는 *yes/no*의 문문과 그에 대한 반박이나 동의의 대답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 (25) (*Jones*는 일반적으로 털털하지만 때때로 단정할 때도 있다. 단정할 때는 그에게 여자 친구가 생긴 경우이다. 그의 친구들이 이 점에 익숙하다.)
 a. A: Jones has transformed himself again recently.
 (함축 : Jones has a new girl.)
 B: No, he hasn't.
 b. A: Has Jones tidied himself up lately?
 B: Yes, he has.

위 예는 (25a)의 B가 보여주는 반박이 명시 의미만을 겨냥할 수 있어서, *Jones*가 단정한 모습이 되었다는 단언과는 모순이 되나 A의 함축과는 모순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 맥락에서 (25b)의 A의 질문이 *Jones*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는가? 라는 말을 함축할 수는 있지만, B의 대답은 *Jones*의 애정문제가 담긴 함축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Jones*의 외모에만 국한된 명시적 질문에만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and*의 추가적 정보는 함축과는 다르게 행동한다. 다음 (26)의 예는 (20b)에서처럼 사건의 순서를 의미하는 *after that* 혹은 *subsequently*를 추가시킨다.

- (26) A: (to the director) I light her cigarette and she smiles, right?
 B: No, she smiles and you light her cigarette.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사건들의 순서가 B의 대답 목표이다. 이것은 *subsequently*와 같은 추가 정보가 명시 의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들 예들이 시사하는 것은 축자적 의미와 표현된 명제 사이의 괴리가 지시 부어 및 중의성 해소로만 보충될 수 없다는 것이며, 청자는 관련된 명제를 복원시키기 위해 화자의 특별한 화용론적인 의도를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자의 의미보충

과정은 발화에 의해 표현된 단순 명제의 복원에만 그치지 않고 복잡한 명제의 복원까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상위절 구조의 명시의미

지금까지 정확을 기술하는 명제 형식의 발화는 대부분 단순명제이었다. 그러나 단순 명제의 복원만으로는 평서문 발화의 해석조차도 완전히 부각시킬 수 없다. 그리하여 본 절에서는 복잡한 명제까지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 복잡한 명제란 단순 명제를 화자의 명제적 태도를 나타내는 상위절⁴⁾(higher-level clause) 구조에 주입시켜서 만든 명제를 말한다. 이러한 명제의 대표적 예는 상위절 구조가 명제적 태도 동사로 된 명제 형식과 화행에서 나타나는 모든 형식의 명제형식이다. 먼저 명제적 태도 동사의 상위절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명제적 태도 동사의 상위절 구조

화자가 다음 (27)의 발화를 하면서, 화용론적으로 (28a)의 복잡한 명제를 전달하고자 의도할 수도 있다.

(27) I've got a lot of work to do.

(28) a. The speaker believes that he has a lot of work to do.

b. The speaker regrets that he has a lot of work to do.

과연 그 발화의 주된 관련성은 명제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나의 부과제는 이 명제적 태도를 밝혀내는 일이다. 명제적 태도를 모르면 청자는 화자가 (27) 자체 이외에 무엇을 의사소통하고자 했는지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말하면 (27)를 단언하는 것은 (28a)와 (28b)를 포함한다.

청자가 보충한 상위절 구조의 명제라고 해서 반드시 명시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다. (27)의 화자는 (28b)처럼 그가 해야 했던 일의 양에 대해 즐겁지 않았음을 청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의도했을 수도 있다. 그의 목소리를 들어서는 유감의 음색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화자는 그의 유감을 청자가 눈치 채도록 의도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명시의미를 고려할 때, 화용론이 기반이 되는

4) 상위절은 본문의 예 (28)에서 'The speaker believes'와 'The speaker regrets'의 부분을 말하고, *that* 이하의 부분인 종속절은 여기서 명제(proposition)라고 지칭된다.

명제적 태도까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화행(speech acts) 이론은 이러한 화자의 명제적 태도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 다음 소절에서 화행 발화로부터 복원될 수 있는 상위절 구조 형식을 통해 명시의미의 또 다른 양상을 논의하기로 한다.

2. 화행과 상위절 구조의 명시의미

화행이론을 다루기에 앞서 다음 (29)와 같은 발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29)의 발화는 단순한 하나의 명제로만 해석되지 않고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명제로 해석될 수 있다(Blakemore 1992).

(29) There's a snake in the grass.

(29)의 화자는 '한 마리의 뱀이 있다'는 추측을 할 수도 있고 주장을 할 수도 있으며, 청자에게 경고할 수도 있다. 또는 '뱀이 있다'고 놀람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안도감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화자의 행위를 화행이라 하며 이 화행은 독특한 형식의 명제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29)가 '풀 속에 뱀이 있다'라는 명제를 단순히 표현한 것으로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화자의 의도에 따른 화행을 분류하여 화행에 적합한 명제로 표현되어야 그 명시의미가 부각되어 나타날 것이다. 예컨대, (29)가 경고의 화행이라면, 그것은 다음 (30)과 같은 방식의 해석을 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0) The speaker of (29) is warning the hearer that there is a snake in the grass.

그러므로 (30)은 (29)의 명시의미이며, (30)에서 볼 수 있듯이, 경고의 화행은 상위절 구조에 표현되고 있다.

한편, 화행이론의 근본가정은 화행의 분류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그리하여 발화에 의해 의사소통된 것은 그것이 특정한 화행 유형에 속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고를 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 또한 추측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 물론 약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가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 각 경우에 청자는 수행된 화행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하면 발화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화행이론에 따르면 단순히 화자의 의도를 인식하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유형의 화행을 수행하려는 의도를 인식하는 문제이다(Blakemore 1992).

화행의 분류로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주장, 경고, 약속, 추측, 놀람, 안도감 외에도

내기를 하는 것, 명명하는 것, 세례를 주는 것, 단언하는 것, 요청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화행의 분류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문장들의 한 무리가 있다. 이들을 명시적 수행문 발화라 하는데 한 예로서 다음 (31)을 들 수 있다.

- (31) a. I predict that Jane will leave the room.
 b. I promise that I will not smoke.
 c. I bet that Jane will leave the room.

수행문의 구조적 특징은 주어가 일인칭 *I* 이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시제인 수행동사로 구성된 상위절 구조를 취한다. (31a,b,c)도 예외가 아니어서 상위절 구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31b,c)는 발화의 핵심이 약속과 내기이므로 상위절 구조가 중요하다. 그러나 (31a) 발화의 주된 관련성은 예측의 행위를 나타내는 상위절 구조에서 온다기보다는 주입되어있는 명제로부터 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주입된 명제가 참이라고 화자는 청자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위절 구조인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을 구하기 전에, 다음 (32)의 예도 이와 동일하게 상위절 구조의 의미가 약한 경우이다.

- (32) I conclude that nouns are verbs.

뿐만아니라 심리동사인 *think*와 *know*에 있어서도 이런 현상이 마찬가지로이다. 가령, 다음 (33)의 예를 보면,

- (33) I think that you are wrong.

상위절 구조인 *I think* 보다 주입된 명제 *you are wrong*이 핵심이다. 이들 동사들의 특징은 삽입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은 또한 다음 (34)처럼 표현이 가능하다.

- (34) You are wrong, I think.

그러나 *promise*, *bet*와 같은 동사들은 위 (34)처럼 표현은 불가능하다.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예측'을 하고 '경고'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답의 실마리는 다음 (35)의 두 문장에 존재한다.

- (35) a. Do you remember the man who bought your car? Well, he is doing first philosophy course.

- b. Do you see that building over there? Apparently, it's sinking about a foot a year.

실제로 (35a)와 (35b)의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각각 특정 정보가 후속 발화의 의미해석을 위해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35a)에서, 화자가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청자에게 환기시켜서, 그 질문이 후속 발화의 의미해석을 위한 맥락으로서 쓰이고 있다. (35b)에서는, 화자가 그 건물의 돋보임을 확신하고 있어서 후속 발화에서 그 건물을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첫 문장의 역할은 다음 발화의 의미해석시 청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측'을 하거나 '경고'를 하는 표현인 상위절 구조는 주입된 명제를 해석하려는 청자를 돕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수행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상위절 구조의 역할이 한결같지 않다. *promise*, *bet*와 같은 상위절 구조는 문장의 주된 관련성을 나타내지만, *predict*, *warn*, *conclude*와 같은 상위절 구조는 단지 문장의 보조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 수행동사는 발화 해석의 한 양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평서문 형태인 하나의 발화는 실제 정황의 진술뿐만 아니라 명령이나, 질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자는 화자가 '진술'하고 있는지, '명령'을 하고 있는지, 혹은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설정하지 않는다면, 한 발화를 이해할 수 없다. 가령, 다음 (36)의 발화를 고려해 볼 때,

- (36) You are leaving.

(36)은 단순히 청자가 떠나려 한다는 진술로도 의도될 수 있고, 또는 청자가 떠나야 한다는 명령으로도 의도될 수 있으며, 또는 청자가 떠나려는지 묻는 질문으로도 의도될 수 있다. 만약 진술로 의도되었다면, 청자가 다음 (37)의 '진술'을 복원할 수 있을 때에만 (36)의 화자는 청자와 의사소통을 성공할 것이다.

- (37) The speaker is saying that the hearer is going.

따라서 평서문 형태의 한 발화에 관하여 그것이 진술인지, 명령인지 아니면 질문인지의 의도가 상위절구조의 명시 의미로 통합되어야만 한 발화의 정확한 의미해석이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해석적 사용과 명시 의미

앞 소절에서 필자는 (36)이 진술, 명령, 및 질문의 화행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논의

하였다. 본 소설에서 이 화행 잠재력 가운데서 하나의 실제 발화 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을 선택하기 위해 화자가 맥락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설명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청자의 발화 이해는 적절하게 관련되는 해석을 복원시키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적절하게 관련되는 해석이, 명제가 반드시 화자의 의견을 나타낸 문자적 표상이어야 한다는 해석은 아니다. 다음 (38)의 예가 이 점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Blakemore 1992).

(38) A: What did Jane say?

B: The prime minister is never going to stand down.

(38)의 문제점은 표현된 B의 명제가 화자의 의견이나 사상을 표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화자는 단지 Jane이 말한 것을 전달하고 있으며 그 발화는 Jane이 말한 것을 표상한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실제 Jane의 한 말을 그대로 옮겼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Jane이 (38) B의 발화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다음 (39a) 혹은 (39b)의 발화를 했을지도 모른다.

(39) a. She will never stand down.

b. Mrs Thatcher? She'll never resign.

(38)에서 B의 발화는 그것이 Jane의 발화를 답았다는 사실에 의해 Jane의 발화를 표상한 것이다. 그래서 Jane이 (38) B의 발화를 행했다면 그 유사성은 매우 가깝다. 즉, B의 발화는 Jane의 발화와 동일한 언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만약 Jane이 (39a)나 (39b)의 발화를 행했다면, 그 유사성은 다소 덜 충실할 것이다. 그렇지만, 각 경우마다 B의 발화가 Jane의 발화와 논리적 및 맥락적 함언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의 유사성이 존재한다. 내용의 유사성이 존재하는 한 언어 전달은 가능하며 이것을 언어 전달의 해석적 사용이라 한다.

충실성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때때로 화자는 어떤 수준의 충실도가 의도되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 (40)의 예를 보면,

(40) He's bringing a cheesecake. That's *precisely* what he said.

맥락과 화용론적 원리에 기초하여 한 해석이 얼마나 충실하게 제안되고 있는지를 결정 하도록 청자에게 맡겨진다. 여기서는 *precisely*가 말의 출처에 대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의 유형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표현들이 다음 (41)에서 이탤릭체로 제시된다.

- (41) a. *Apparently* Nigel is in town.
 b. *Evidently* Nigel is in town.
 c. *I gather that* Nigel is in town.
 d. *They say that* Nigel is in town.

이들 중 (41a,b)는 어휘적 장치들이지만, (41c,d)는 상위절 구조이다. 많은 작가들이 말을 전달할 때 해왔듯이, 화자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때마다 (41)과 같이 하나의 소문 불변화사(hearsay particle)를 쓰든지 아니면 상위절 구조의 명시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상위절 구조의 명시의미에 대해 명제적 태도동사의 상위절 구조, 화행과 관련된 상위절 구조의 명시의미, 그리고 언어전달의 해석적 사용과 명시의미를 논의하였다. 명시의미의 규명을 위해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복원할 때, 맥락 정보에 기초해서 최대한 상위절 구조로 표현되는 명시의미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명시의미의 규명에 따르는 화용론적 기여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 발화의 명시의미의 규명은 전통적으로 문법에서 취급되어 온 영역인 중의성, 대명사 등의 변형, 그리고 직시체제적 표현 등에 맥락 정보의 기여로 발화의 명시의미가 부각될 수 있는 방식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문법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타의 영역인 양화사, 형용사 및 연결발화 등에 화용론적 정보가 이들의 명시의미의 확인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모두 한 발화에 의해 표현된 명제가 더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한편으로, 상위절 구조 형식의 명시의미와 관련하여 화행이론에서 취급되어온 화행과 수행문, 또한 명제적 태도가 논의되었다. 이들 화용론적 요인들의 기여를 통해,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복원할 때 청자는 화행이나 태도를 명시하는 상위절 구조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언어전달에서 화자는 언어의 해석적 사용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청자의 복원은 상위절 구조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명시의미의 확인은 화용론적인 맥락 정보를 분명히 필요로 하지만, 이 맥락 정보는 문법에 의해 제공된 터 위에서만 활용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복원된 명제 즉 명시의미와 발화의 언어적 속성 사이에는 여전히 긴밀한 의미적 및 논리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그것은 함축의미와 구분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명시의미의 규명 과정과 그에 따르는 화용론적 기여가 밝혀짐에 따라 본 연

구 결과의 활용 영역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발화의 이해와 영어 독해력 지도 영역이다. 영어 학습자의 독해력 신장을 위해 한국 영어 교육 현장에서 본 연구가 적절히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Blakemore, D. (1992). *Understanding utterances: an introduction to pragmatics*. Oxford: Blackwell.
- Carston, R. (1988). Implicature, explicature, and truth-theoretic semantics. In R. Kempson (Ed.), 155-82.
- Cole, P. and Morgan, J. (Eds.) (1975).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Morgan (Eds.), 41-58.
- Kearns, K. (2000). *Semantics*. Houndmills: MacMillan Press.
- Kempson (Ed.) (1988). *Mental representations: the interface between language and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inson, S.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erber, D. and Wilson, D.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Kim, Chang-ik
 호서대학교 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120-1
 Tel: (041) 560-8173
 E-mail: cikim@office.hoseo.ac.kr

Received in Sept., 2003
 Reviewed in Oct., 2003
 Revised version received in Nov., 2003